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세노텍(222420)

비금속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이윤선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21.02.18에 발간된 동 기업의 기술분석보고서에 대한 연계보고서입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노텍(222420)

세라믹 비드 제조기업, 신규 사업을 통한 사업구조 개선

기업정보(2022/03/02 기준)

대표자	이승호, 허명구
설립일자	1999년 05월 14일
상장일자	2016년 07월 25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주요제품	세라믹 비드·플렉스, 지르콘 분체 등

시세정보(2022/03/04 기준)

현재가	1,725원
액면가	100원
시가총액	693억 원
발행주식수	40,158,175주
52주 최고가	2,725원
52주 최저가	1,535원
외국인지분율	0.29%
주요주주	
이앤에프마블홀딩스	47.56%

■ 세라믹 소재를 활용한 세라믹 비드, 분체 및 플렉스 개발

세노텍(이하 동사)은 세라믹 소재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세라믹 비드, 지르콘 분체, 용접용 플렉스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동사는 1995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2016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라믹 비드를 생산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동사의 매출은 2020년 사업보고서 기준 234.1억 원이며, 세라믹 비드가 63.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며 동사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 전자제품의 소형화 및 집적화에 따른 초소형 비드 수요 증가

동사의 주요 매출원인 세라믹 비드는 분쇄 및 분산 용도로 사용되는 산업 소재로, 사용 용도에 따라 크기 및 종류가 다양하다. 세라믹 비드는 광산산업의 분쇄 공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사용처가 확대되며 전기·전자, 에너지, 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자제품이 소형화되고, 집적화됨에 따라 소재의 나노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나노 사이즈의 초소형 세라믹 비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동사는 2021년 한국재료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30 μ m급 세라믹 비드를 개발해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초소형 세라믹 비드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였다.

■ 촉매용 담체 개발을 통한 사업 다각화

동사는 보유하고 있는 세라믹 소재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촉매용 세라믹 담체를 개발하였다. 담체는 촉매가 손상되지 않고 성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석유·화학 기업 등에서 많이 사용된다. 동사는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촉매용 담체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약 70억 원을 투자하여 담체 전용공장을 설립하고 양산화를 계획 중이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별도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328.0	-19.0	-15.7	-4.8	-27.7	-8.4	-7.3	-4.4	92.3	-71	921	N/A	2.2
2019	282.1	-14.0	-1.1	-0.4	-21.5	-7.6	-6.0	-2.8	144.5	-54	869	N/A	2.3
2020	234.1	-17.0	-25.0	-10.7	-71.7	-30.6	-22.8	-8.6	189.1	-179	699	N/A	3.1

기업경쟁력

세라믹 소재 제조기술 확보

- 세라믹 소재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세라믹 비드, 플렉스, 지르콘 분체 등을 개발하여 판매 중
- 기존 수입 제품의 국산화를 통해 고객사의 니즈에 맞춘 제품 판매 가능

신규 사업을 통한 사업 다각화

- 초소형 세라믹 비드 개발을 통해 전기·전자 분야로 사업 확장
- 촉매용 담체 개발에 성공하여, 양산화 계획 중
- 과립형 화학 중화 방제제를 개발하여 기존의 분말형 방제제 대체 예정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주요 핵심기술

- 세라믹 비드, 세라믹 플렉스, 지르콘 분체 등의 설계 능력 및 원천기술 보유
- 30 μ m급 초소형 세라믹 비드 개발
- 저온에서도 용접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특수 세라믹 플렉스 국산화 성공
- 동일 가격 대비 낮은 입도의 지르콘 분체를 개발하여 가격경쟁력 확보

동사의 주요제품



시장경쟁력

세계 세라믹 비드 시장규모 및 전망

연도	시장규모	성장률
2018년	4.1억 달러	연평균 8.0% ▲
2023년	6.4억 달러	

- 세라믹 비드는 지름 0.1~10mm 이하의 구형 형태로 제조되며, 분쇄 및 분산 용도로 사용됨
- 세라믹 비드는 광산산업의 분쇄 공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광산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며, 사용량이 감소함
- 최근 이차전지 및 반도체용 희귀 금속의 수요가 증가하여 광산 운영이 재가동되기 시작하였으며, 첨단 산업 분야로 세라믹 비드의 사용처가 확대됨에 따라 추후 세라믹 비드 시장의 성장이 예상됨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는 경영이념으로 환경을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두고 있음.
- 동사는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G

(기업지배구조)

- 동사의 이사회는 총 6인으로, 사내이사 4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사는 사외이사 2인을 포함하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중 회계, 재무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음.

* NICE디앤비의 ESG 평가항목 중, 기업의 ESG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현황을 구성

I. 기업현황

세라믹 소재 개발업체, 신규 사업을 통한 사업 다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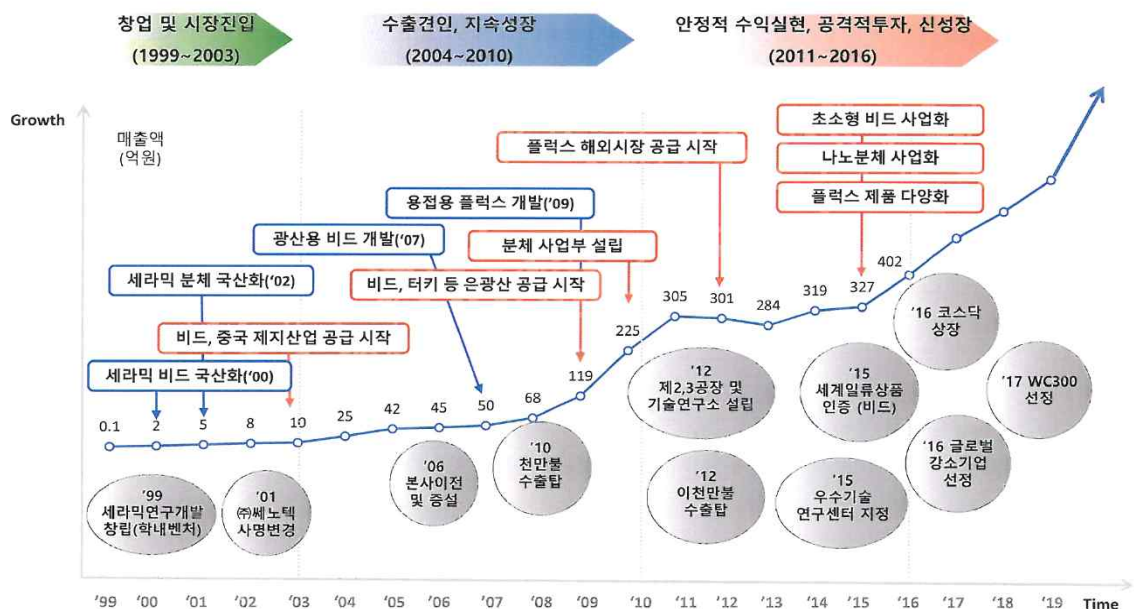
동사는 세라믹 소재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세라믹 비드, 분체 및 플럭스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최근 동사의 매출은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초소형 세라믹 비드 개발 및 신규 사업 확장을 통한 매출 회복이 예상된다.

■ 기업개요 및 주요주주

동사는 1999년 5월에 (주)세라믹 연구개발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으며, 2001년 9월 (주)세노텍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후 2016년 7월에 미래에셋제4호기업인수목적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세라믹 소재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세라믹 비드, 분체, 플럭스 제조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동사는 1999년 설립 이후, 2000년에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세라믹 비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하였으며, 2002년부터 해외에 수출을 시작하여 현재 세계 70여 개국 200개 이상의 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한편,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9)에 따르면, 동사의 최대주주는 이엔에프마블홀딩스로 47.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엔에프마블홀딩스는 이엔에프마블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설립한 투자목적의 회사이다.

[그림 1] 동사의 주요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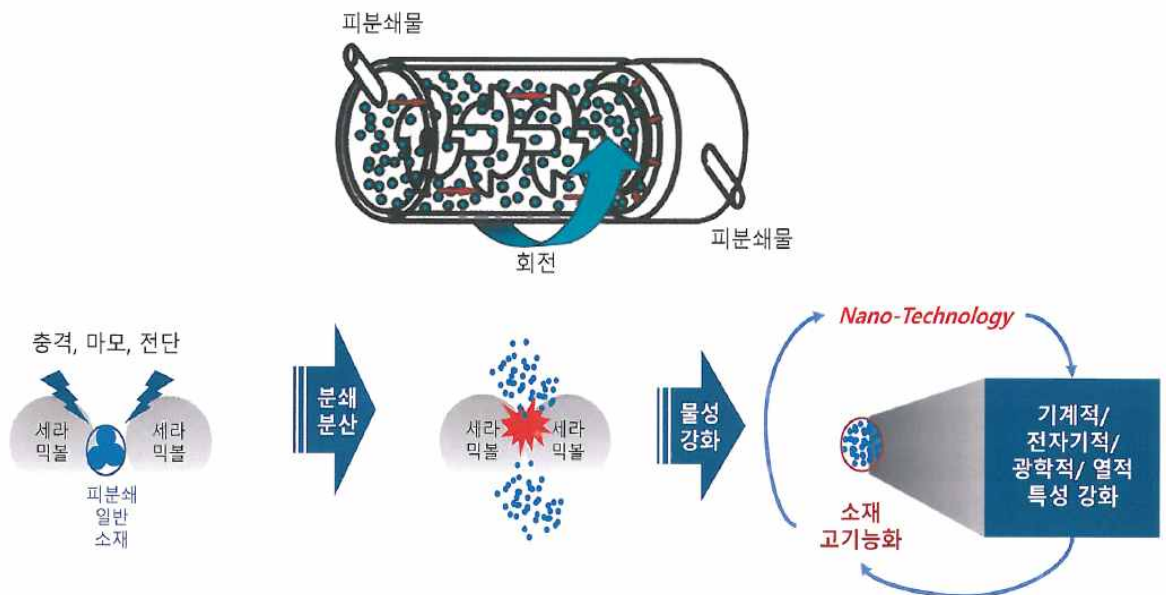
*출처: 동사 IR 자료

■ 주요 사업 현황

동사는 세라믹 소재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세라믹 비드, 세라믹 플럭스, 지르콘 분체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세라믹 소재는 비유기물, 비금속성 소재로서 금속, 비금속 등의 원자가 강한 이온이나 공유결합으로 결합된 고체물질로 주로 도자기, 타일, 시멘트, 유리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라믹 소재의 뛰어난 내열성 및 내마모성, 내화학적 및 전기전자적 특성을 바탕으로 사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동사의 주요 생산 제품인 세라믹 비드는 광산, 페인트, 잉크, 제지 등 각 산업에서 쓰이는 대형분쇄기(Mill) 내부에 들어가 고속으로 회전하며 광물, 안료, 석회석 등의 물질을 분쇄 및 분산하는데 사용된다. 최근에는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전기·전자,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첨단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 분말의 나노 미세화 및 부품의 집적화에 따라, 기존 세라믹 비드보다 크기가 작은 초소형 비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동사는 보유하고 있는 소형 세라믹 비드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2019년 50 μ m급 세라믹 비드를 개발하였으며, 2021년 한국재료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30 μ m급 세라믹 비드 개발에 성공하였다.

[그림 2] 세라믹 비드를 활용한 분쇄·분산 공정도



*출처: 동사 IR 자료

동사는 세라믹 비드에서 파생된 가루 상태의 입자인 지르콘 분체도 생산·판매하고 있다. 지르콘은 규산염 사면체(SiO₄)에 지르코늄(Zr)이 결합되어 정방정계의 결정형을 갖는 광물이다. 지르콘 분체는 도자기 등을 하얗게 보이게 하는 불투명화제(유백제) 및 연마제 등으로 많이 사용되어, 도자기, 타일, 치과용 임플란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지르콘 분체는 입자가 작을수록 높은 백색도를 나타내므로, 동사는 동일 가격 대비 낮은 입도의 제품을 개발하여 고객사의 니즈에 맞춘 제품을 판매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동사는 2008년부터 특수용접용 세라믹 플럭스 개발을 진행하였다. 플럭스란 용접봉의 철막대를 감싸고 있는 성분 중 하나로 용접 시 접합하고자 하는 두 금속 사이로 흘러 들어가는 용재를 외부 공기로부터 보호하는 필수 소재이며, 영하 60℃ 이하의 극한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액화천연가스선이나 해양플랜트에는 일반 플럭스는 사용이 불가하여 세라믹 플럭스가 함유된 특수 용접봉이 사용된다. 동사는 저온에서도 용접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특수 세라믹 플럭스를 국산화하였으며, 링컨(Lincoln) 일렉트릭, 윌리콘(Oerlikon) 등 해외 대형 용접봉 제조업체로 공급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림 3] 동사 제품의 활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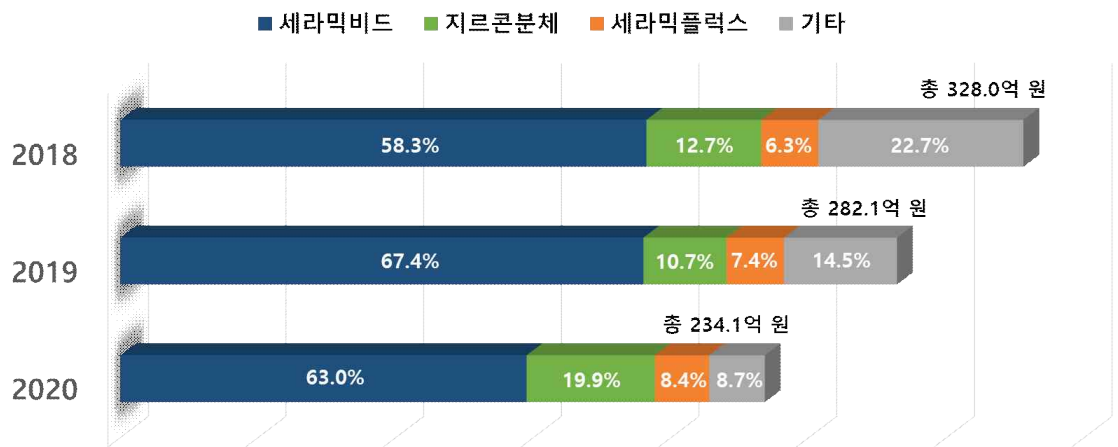
*출처: 동사 IR 자료

■ 매출 현황

동사는 세라믹 소재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여 전자재료 및 페인트, 잉크, 제지, 광물 생산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다. 동사의 사업부는 분쇄/분산용 세라믹 비드 사업부, 용접재료용 플럭스 사업부 및 분쇄 사업부로 구분되어 있다.

동사의 사업보고서(2020.12)에 의하면, 동사의 매출액은 2018년 328.0억 원, 2019년 282.1억 원, 2020년 234.1억 원으로 3개년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사의 2020년 기준 매출 비중은 세라믹 비드가 63.0%, 세라믹 플럭스가 8.4%, 지르콘 분쇄가 19.9%, 기타 8.7%로 세라믹 비드가 동사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세라믹 비드는 광산에서 광물을 채취율을 높이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광산의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며, 세라믹 비드의 사용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동사의 매출도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이차전지 및 반도체용 희귀 금속의 수요 증가로 광산 운영이 재가동되기 시작하였고, 동사는 초소형 비드의 개발을 통해 적층세라믹캐패시터(Multi Layer Ceramic Capacitor, MLCC), 이차전지 등 전자재료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어 추후 매출의 상승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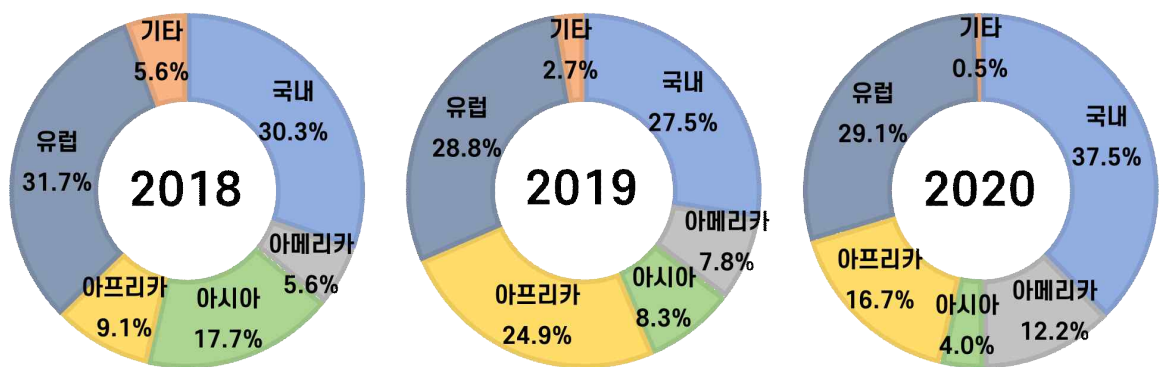
[그림 4] 동사의 최근 3개년간 매출액 추이 (단위: 억 원, %, K-IFRS 별도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 제품의 최근 3개년간 매출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9.7%, 2019년 72.5%, 2020년 62.5%로 수출의 비중이 높다. 이에 동사는 해외 총판점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니즈에 맞춘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영업 및 기술에 대해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약 200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림 5] 동사 제품의 최근 3개년간 매출 비중 (단위: %, K-IFRS 별도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NICE디앤비 재구성

■ 세라믹 비드 관련 산업의 동향 및 시장규모 전망

동사는 세라믹 소재를 이용한 세라믹 비드 및 분체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동사의 주요 매출원인 세라믹 비드는 분쇄 및 분산 용도로 사용되는 산업소재로, 지름 0.1~10mm 이하의 구형 형태로 제조된다. 최근에는 전기·전자 및 에너지 산업 등에서 초미세 비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0.05mm 수준의 고인성 세라믹 비드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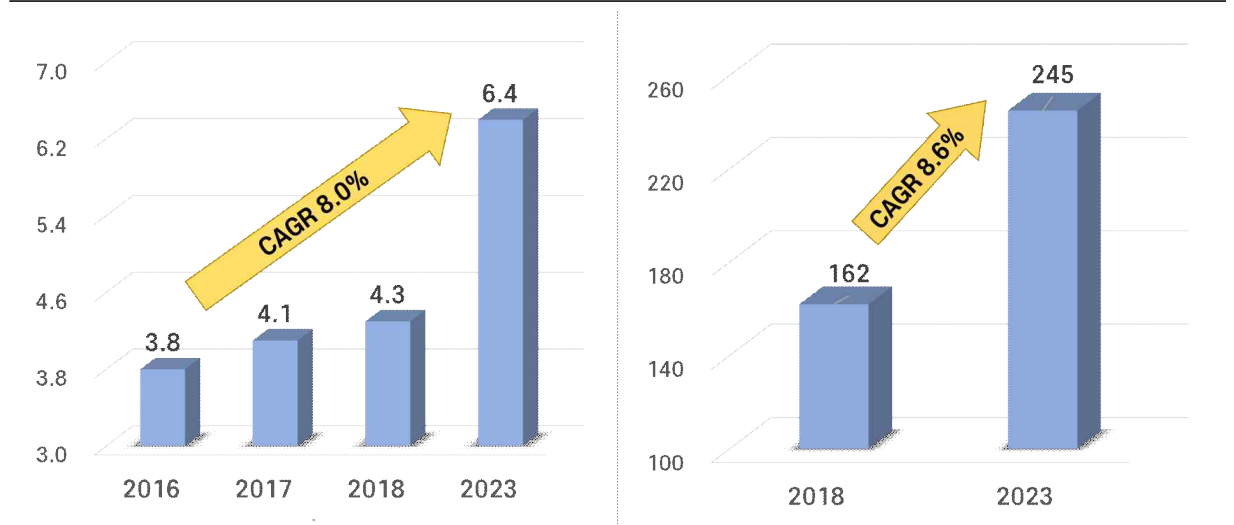
세라믹 비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광산산업의 경우 초기에는 천연광물을 사용한 분쇄 공정을 도입하였고, 이후 분쇄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금속 불을 적용하였으나, 금속 불이 쉽게 마모되어 제품에 혼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세라믹 소재는 높은 기계적 물성 및 내화학성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3세대 분쇄 미디어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세라믹 비드의 사용으로 분쇄

효율이 향상되고, 고순도의 최종 추출물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세라믹 비드의 사용처가 점차 확대되어 전기·전자,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제품의 소형화 및 집적화에 따라 소재의 나노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나노 사이즈의 초소형 세라믹 비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KEIT PD 이슈 리포트(2019)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세계 세라믹 비드 시장은 2016년 3.8억 달러에서 연평균 8.0% 성장하여 2023년 6.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MarketInsightsReports(2020)의 자료에 따른 첨단 및 나노 크기 세라믹 분말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8년 162억 달러에서 2023년 245억 달러로 연평균 8.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림 6] 세계 세라믹 비드(좌) 및 첨단·나노 크기 세라믹 분말(우)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출처: KEIT PD 이슈 리포트(2019), MarketInsightsReports(2020), NICE디앤비 재구성

■ 경쟁사 분석

동사의 주요 매출처는 페인트, 잉크, 제지, 광물 생산업체 등이며, 국내에서는 동사가 유일하게 관련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현재 동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 중인 업체는 프랑스의 [생고뱅(Saint-gobain)], 일본의 [도레이(Toray)]와 [니카토(Nikkato)] 등이 있다.

[생고뱅]은 1665년 설립된 프랑스 업체로, 세라믹 및 고성능 플라스틱 재료 등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생고뱅]은 세라믹 비드를 처음으로 개발하였으며, 2015년 특허가 만료되어 여러 국가에서 세라믹 비드가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생고뱅]은 현재 많은 자회사를 통해 유리제품, 건축자재 및 항공·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도레이]는 1926년에 설립된 일본 업체로, 전 세계 282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섬유, 탄소섬유 복합소재,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도레이]는 지르코니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고성능 세라믹 비드를 생산 중이며, 세라믹 비드 뿐만 아니라, 세라믹을 활용한 이차전지 분리막 등 다양한 분야의 세라믹 소재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니카토]는 1913년에 설립된 일본 업체로, 세라믹 비드, 세라믹 튜브, 도자기 등 세라믹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온도 센서, 계측·제어 기기 등의 개발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다. [니카토]는 현재 30 μ m급 초소형 세라믹 비드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세라믹 비드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페인트/잉크 분야에서 일본이 약 40%, 프랑스가 약 30%, 동사가 약 30%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자재료 분야에서는 일본이 약 83%, 프랑스 및 중국이 약 10%, 동사가 약 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주요 경쟁사 비교

기업명	업체 현황	2020년 매출액(억 원)
생고뱅 (Saint-gob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65년 설립 세라믹 및 고성능 플라스틱 재료 개발 세라믹 비드를 최초로 개발 	519,261 (전년대비 10.4%▼)
도레이 (Tor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26년 설립 섬유, 탄소섬유 복합소재,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영위 지르코니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고성능 세라믹 비드 생산 	195,465 (전년대비 9.9%▼)
니카토 (Nikka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13년 설립 세라믹 비드, 세라믹 튜브, 도자기 등 세라믹 소재 제품 생산·판매 30μm급 초소형 세라믹 비드 개발하여 판매 중 	898 (전년대비 7.2%▼)
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9년 설립 세라믹 소재를 기반으로 세라믹 비드, 분체, 플렉스 등을 생산·판매 세라믹 담체, 화학 중화 방제제 등의 개발을 통한 사업 확장 	234 (전년대비 17.0%▼)

*출처: 각사 홈페이지 및 공시자료, NICE디앤비 재구성

■ 촉매용 담체 및 화학 중화 방제제 개발을 통한 사업 다각화

동사는 세라믹 소재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촉매(Catalyst)용 세라믹 담체(Carrier)를 개발하였다. 촉매는 화학반응에서 자신은 소모되지 않으면서 반응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 주는 물질로, 다양한 화학 공정에 사용된다. 이러한 촉매를 지지·저장하는 것이 담체이며, 담체는 촉매가 손상되지 않고 성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담체는 열·화학 안정성 및 기계적 강도가 높아야 하며, 촉매를 담을 수 있도록 크기의 제어가 중요하다. 담체는 석유·화학 기업 등에서 많이 사용되며,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였다. 동사는 촉매용 담체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투자금 약 70억 원을 투입하여 담체 전용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동사는 과립형 화학 중화 방제제를 개발하였다. 화학 중화 방제제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 시 현장에 살포하여 유해물질의 흡착 및 유해화학물질과의 중화반응을 통해 위험을 제거하는 제품이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분말형의 제품은 비산으로 인하여 살포 시 적중률이 떨어지며, 추후 방제제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동사는 보유하고 있는 구형화

제조기술을 적용하여 과립형 방제제를 개발하여 기존 제품 대비 적중률 및 성능을 개선하였으며, 현재 OEM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 동사의 SWOT 분석

[그림 7] SWOT 분석



■ 동사의 ESG 활동

환경(E) 부문과 관련하여, 동사는 환경을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재사용을 위해 사내 일회용 물품 사용 근절 등 환경경영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사회(S) 부문에서, 동사는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내 카페와 휴게실을 구비하고, 중식 및 석식 지원, 통근버스 운행 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도서구입비 지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 리더십 강화교육, 멘토링 제도, 사이버 연수원 운영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자기계발을 돕고 있으며, 복지카드 지원, 가족 수당 및 보육 수당, 리프레쉬 휴가 제도 등을 두고 있다.

동사는 기업의 이익과 성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역시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경남대학교에 대학 발전기금 10억 원을 기탁하고, 경남 함안군장학재단에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5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다. 동사는 이와 같이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9)에 의하면,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약 8.5%로 동사가 속한 비금

속 광물 관련업의 여성 고용비율 평균인 9.9%(2020년도 산업별 여성 고용비율, 고용노동부)를 하회한다. 또한, 동사의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60.0%로 동 산업 평균인 72.9%를 하회하며,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52.0%로 동 산업 평균인 96.9%를 하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동사 근로자의 근속연수 및 급여액

성별	직원 수(명)			평균근속연수(년)		1인당 연평균 급여액(백만원)	
	동사	기간제 근로자	합계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95	2	97	5.0	6.5	35	48
여	9	0	9	2.6	6.3	21	35
합계	104	2	106	-	-	-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21.0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지배구조(G) 부문에서,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9)에 의하면 이사회는 총 6인으로, 사내이사 4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외이사 2인을 포함하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중 회계, 재무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동사는 감사위원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감사지원 조직을 두고 감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II. 재무분석

시설 투자 및 수요 확대로 2021년 매출 및 수익성 반등

최근 3개년간 매출 외형 감소 및 수익성 적자상태 지속하였으나,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매출액을 상회하는 등 회복세로 돌아선 가운데, 영업수지와 전체수지도 흑자전환하였다.

■ 국내 유일 세라믹 비드 관련 제조업체

동사는 세라믹의 물리적 처리를 통해 수요산업에 적합한 물성을 지닌 제품 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세라믹 비드 양산화에 성공한 업체이다. 동사의 사업분야는 크게 비드 사업부, 분체 사업부, 플럭스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비드 사업부는 분쇄·분산용 세라믹 비드를, 분체 사업부는 정밀주조, 유약, 타일 및 생산용 원료인 지르콘 분체를, 플럭스 사업부는 용접재료용 특수 세라믹 분말을 주요 제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2020년 사업보고서 기준 제품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세라믹 비드(전기전자용, 광산, 제지/잉크 등) 63.0%, 지르콘 분체 19.9%, 세라믹 플럭스 8.4%, 기타 8.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세라믹 비드의 매출 비중은 2018년 58.3%, 2019년 67.4%, 2020년 63.0%, 2021년 3분기 67.4%를 각각 기록한 바, 세라믹 비드가 동사의 주력 제품이자 매출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최근 3개년 매출 감소세 이후, 2021년 매출 반등

일부 공정변경으로 인한 매출 지연 등으로 인해 2018년 328.0억 원(-19.0% YoY)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공장이전 등에 따른 가동률 감소에 따라 2019년 282.1억 원(-14.0% YoY)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이후에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2020년 234.1억 원(-17.0% YoY)을 기록하는 등 최근 3개년간 연평균 16.7%의 매출액 감소율을 보이며, 외형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다만, 2021년 3분기 기준, 주력 제품인 세라믹 비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8.4% 증가한 것과 더불어 분체 품목 매출이 61.8억 원(+84.0% YoY)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에 힘입어 누적 매출액은 247.3억 원(+32.4% YoY)으로 전년 매출액을 상회하였다. 또한, 2021년 3분기 말 기준, 동사가 보유한 수주물량은 USD 3,830,267(한화 약 45억 원 규모)으로 2021년 결산 시, 2019년 매출 외형 수준에 준하여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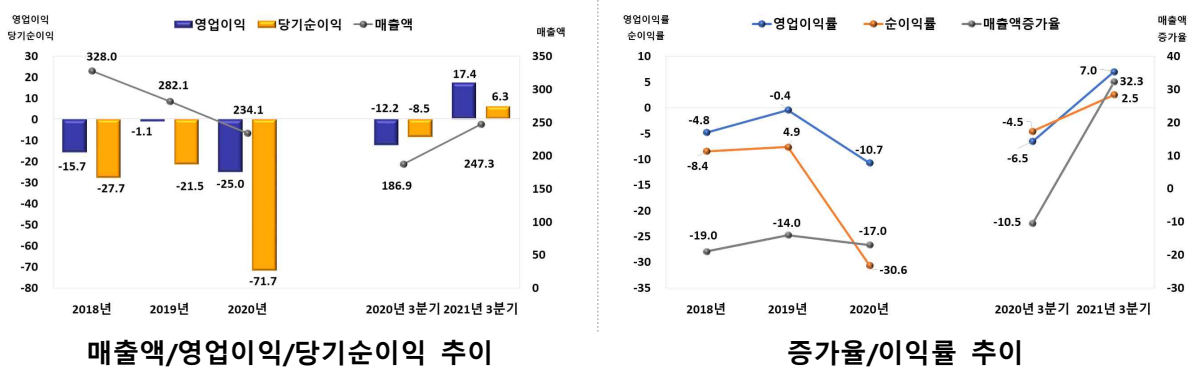
■ 최근 3개년간 수익성 적자 지속, 2021년 수익성 적자 탈피

2019년 일부 공정변경 등에 따른 품질수준 증대로 매출원가율이 전년 81.1%에서 77.4%로 하락하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0.4%를 기록하여 전년 -4.8% 대비 적자폭이 완화되었으며, 매출액순이익률 역시 전년 -8.4% 대비 개선된 -7.6%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0년

매출원가율은 89.1%로 전년 11.7%p 증가하는 등 원가경쟁력 저하에 기인하여,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이 각각 -10.7%, -30.6%를 기록하며 최근 3개년 중 가장 저조한 수익성을 기록하였다. 특히, 2020년 총당부채전입액 22.8억 원, 유형자산손상차손 14.9억 원 등 영업외비용 증가로 전체수지 적자폭이 크게 두드러졌다.

다만,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원가율은 전년 동기간 83.1% 대비 3.0%p 감소한 80.1%를 나타냈고, 매출 증가에 따른 판매관리비 등 고정성 경비 부담 완화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7.0%를 기록하였다. 한편, 자산외형 대비 과중한 차입규모에 따른 금융비용 등으로 인해 매출액순이익률은 매출액영업이익률 대비 4.5%p 낮은 2.5%를 기록하는데 그쳤으나, 전반적인 수익성은 전년 동기 및 기말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하였다.

[그림 8]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별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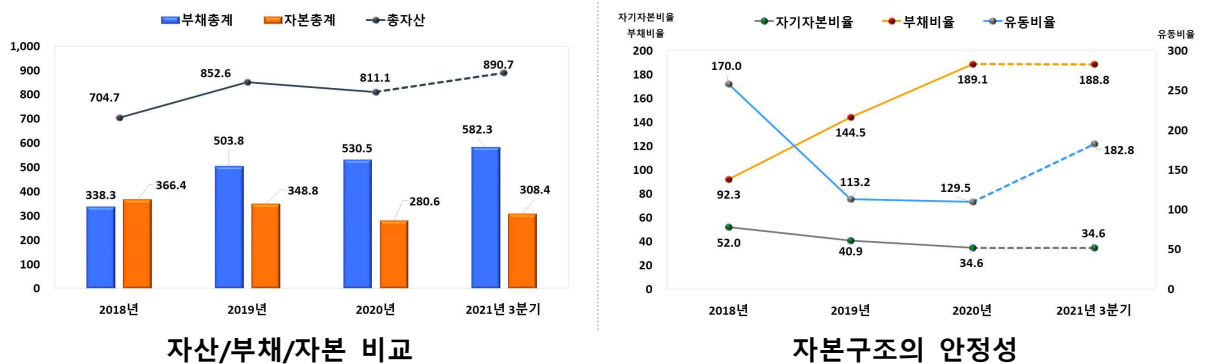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 최근 3개년 자기자본 축소에 따른 재무구조 저하, 2021년 유동성 개선

최근 3개년간 순손실 지속으로 자기자본은 감소세를 기록한 반면, 유형자산 취득 등 투자활동을 위한 차입금 증가 등으로 부채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자기자본비율이 2018년 52.0%, 2019년 40.9%, 2020년 34.6%를 기록하였고, 동기간 부채비율이 각각 92.3%, 144.5%, 189.1%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이 저하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한편, 2021년 3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이 188.8%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이 전년 기말과 비슷한 수준을 지속하였다. 다만, 2021년 이후 기존에 운용하던 단기차입금을 상당부분 상환하고 175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만기일 2026.05.18.)를 조달하면서 유동비율이 2020년 기말 109.7%에서 2021년 9월 말 182.8%로 크게 상승하는 등 단기유동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림 9]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별도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 기타 이슈

2021년 5월 17일, 175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공시하였다. 상기 전환사채 발행 목적은 물품대 등 운영자금[50억 원], 차입금 상환[55억 원], 시설자금[70억 원]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다. 특히, 상기 시설자금은 강소기업 100 관련 담체 전용공장 신설과 설비투자로 비드 제조기술을 활용한 촉매용 담체를 제조해 촉매용 담체 개발품의 품질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한편,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1%, 2%이며, 만기일은 2026년 5월 18일이다.

[표 3]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별도기준)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3분기	2021년 3분기
매출액	328.0	282.1	234.1	186.9	247.3
매출액증가율(%)	-19.0	-14.0	-17.0	-10.5	32.3
영업이익	-15.7	-1.1	-25.0	-12.2	17.4
영업이익률(%)	-4.8	-0.4	-10.7	-6.5	7.0
순이익	-27.7	-21.5	-71.7	-8.5	6.3
순이익률(%)	-8.4	-7.6	-30.6	-4.5	2.5
부채총계	338.3	503.8	530.5	524.8	582.3
자본총계	366.4	348.8	280.6	340.3	308.4
총자산	704.7	852.6	811.1	865.1	890.7
유동비율(%)	258.5	113.2	109.7	120.5	182.8
부채비율(%)	92.3	144.5	189.1	154.2	188.8
자기자본비율(%)	52.0	40.9	34.6	39.3	34.6
영업현금흐름	5.6	9.4	41.5	-5.5	1.8
투자현금흐름	-172.5	-187.0	-54.3	-32.2	-18.4
재무현금흐름	173.1	162.6	11.2	34.0	81.3
기말 현금	27.0	12.0	10.2	8.3	74.9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Ⅲ.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전망

촉매용 담체 개발품 품질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 투자로 실적 확대 전망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 하락세를 보였으나, 수주 물량 확대 등으로 2021년 매출이 반등하였으며, 2021년 6월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공장 및 설비 투자 등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매출 확대 및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공장 신축 등 투자 및 수주 물량을 바탕으로 매출 성장세 지속 전망

최근 3개년간 일부 공정변경으로 인한 매출 지연,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더불어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해 2018년, 2019년, 2020년 각각 19.0%, 14.0%, 17.0%의 매출액감소율을 나타내며, 2020년 234.1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후, 2021년 3분기 말 기준, 주력 제품인 세라믹 비드 매출액은 166.8억 원(+38.4% YoY), 분체 품목은 61.8억 원(+84.0% YoY)로 확대되었고, 이에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 실적은 247.3억 원으로 전년 매출액인 234.1억 원을 상회하였다. 또한,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 17.4억 원, 순이익 6.3억 원을 시현하며, 기말 대비 수익성도 흑자전환하였다.

또한, 2021년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동사의 수주잔고는 USD 3,830,267(한화 약 45억 원 규모)을 보유한 가운데, 2021년 6월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에 세라믹 비드 제조 기술을 활용하여 촉매용 담체 개발품 품질 및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공장 신설 및 설비 투자를 진행한 바, 2022년에도 지속적인 매출 외형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촉매용 담체 사업을 통한 실적 개선 가능성 보유

동사는 미래 먹거리로 촉매용 담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촉매용 담체는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동사가 유일하게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에 동사는 투자금 70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공장을 설립하고, 촉매용 담체 양산화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당초 2022년 상반기 양산 예정이었던 계획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장 완공이 지연되며 본격적인 양산 시기는 2022년 하반기 혹은 2023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동사는 촉매용 담체 개발을 시작으로 기존 세라믹 비드 중심의 사업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세라믹 비드를 비롯한 세라믹 소재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추후 촉매용 담체의 매출 비중을 약 30%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화학 중화 방제제 등의 개발을 통하여 사업 다각화를 모색 중이다.

■ 증권사 투자의견

최근 1년 내 증권사 투자의견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0] 동사 1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금융(2022. 03. 02 기준)